Ⅱ.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

1.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공정가치로 측정

□ 책임준비금을 **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** 보험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망률, 질병율, 이자율 등 상품설계시 예정된 기초율들을 **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의 기초율들로 갱신한다는 것**임.

○ 여기서 공정가치란 자발적인 거래의사를 지닌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조건(arm's length rule)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함.

-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치(market value)는 공정가치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**공정가치 대신에 시장가치라는 표현이 보다 많이 쓰임**.

○ 결국, 책임준비금은 **매기마다 시장가치에 따라(mark-to-market) 책임준비금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에 새롭게 표시되는 것임**.

□ 그러나 보험시장은 재보험 거래를 제외하고는 **보험계약을 사고파는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장(thin market)**임.

○ 따라서 부채의 가치 측정을 위해 시장에서 결정된 기초율들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.

○ 이에 IASB는 시장가치의 사용(published price quotation) 대신 보험사별로 현재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율들(entity-specific values)과 적절한 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**시장가치를 추정할 것을 제안함**.

2.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변화

□ 보험사의 자산은 국제금융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고 부채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아 **대차대조표 양변 모두 공정가치로 표시**되는 것임.

	대차대조표		손익계산서
공정가치 구현	**자산**	**부채**	**수익 또는 비용**
보험	금융회계기준 적용 (공정가치)	**보험회계기준 적용***	자산과 부채의 변동
은행 등		금융회계기준 적용	

○ 따라서 보험사의 대차대조표는 현재와 달리 자산과 부채가 모두 **매기마다 갱신되고,** 전기와 비교하여 당기의 자산과 부채가 늘거나 줄어든 만큼은 **수익 또는 비용으로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**되어야 함.

□ **보험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현재와 달리 변동성이 커짐.**

○ **기존 회계기준에서는** 보험부채를 원가로 유지함에 따라 **수익과 비용을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**하여 왔고, 그 조정 장치로서 미경과보험료적립금과 보험료결손금 등의 제도를 운용해왔음.

○ 그러나 **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** 보험료결손금을 따로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**이연신계약비도 필요하지 않게** 됨.

- 또한, **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도 보험회계상의 준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.**

○ 결국, 당기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그대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현재와 비교하여 **이익의 변동성이 커지게 됨.**